

문화



최재영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인 '귀여운 아이들'이 머그컵에 담겼다. 한희원씨의 대표작인 별빛 쏟아지는 풍경들은 텀블러에 가득하다. 고근호 작가의 '베트맨'은 에코백에, 송필용 작가의 달빛 풍경도 커피를 마실 때면 만날 수 있다. 김상연 작가의 그림이 담긴 노트, 카드지갑과 관화작가 박선주씨의 그림이 담긴 멋진 티셔츠도 눈길을 끈다.



머그컵·텀블러·에코백에... 개성넘치는 아트 상품들

소비자 마음을 훔치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30~50대 작가들의 그림 이미지를 차용한 아트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재로 한 아트상품은 박태후 작가의 참새 시리즈로 제작된 도자기, 우재길 작가의 베타이, 황영성·오승운 작가의 컵 등 주로 중견작가들의 작품이 주류였다.

최근에 선보이기 시작한 젊은 작가들의 아트상품은 지난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무돌아트 컴퍼니가 제작한 것들이다.

무돌아트컴퍼니는 소속 작가들과 인연이 닿은 화가들의 작품을 아트상품으로 제작했다. 무돌아트컴퍼니는 지난해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처음으로 아트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머그컵(1만2000원~1만4000원), 텀블러(1만5000원), 티셔츠(2만원), 가방(에코백·1만5000원), 수첩(3000원~1만원), 카드지갑(3천원) 등을 제작했다. 현재 새로운 상품도 기획중이다.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을 아트상품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이다. 현재 박선주(관화), 이정록(사진), 고근호·송필용·조근호·강남구·강운·최재영·오경규(이상 회화) 씨 등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역 작가는 아니지만 작곡가 김현욱씨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김씨는 음표로만 그린 피아노와 플루트 등 악기들이 새겨진 머그컵과 가방, 수첩 등을 내놓았다. 송필용·오경규 작가의 머그컵 등은 베스트셀러다. 작가들에게는 100여개 이상 팔렸을 때 로열티를 지급한다.

아직은 초창기라 매출액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지만

30~50대 작가들의 작품 문화 상품화

'무돌아트 컴퍼니' 제작... 인기리 판매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광주 빅마켓 진월점에서 열렸던 '와우 아트'전에서는 지역작가들의 아트상품이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아트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로를 확보하는 것. 현재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무돌아트갤러리에서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 등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듯하다. 무돌아트컴퍼니는 현재충장서림 등과 판매를 협의중이며 홈페이지(http://www.mudolart.com)를 통해서도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머그컵, 텀블러 등 다소 천편일률적인 아이템에서 벗어나 무돌아트컴퍼니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무돌아트컴퍼니는 무돌아트갤러리를 직접 운영,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5시30분에는 갤러리에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무돌아트컴퍼니 관계자는 "지역작가들을 홍보할 수 있는 아트상품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34-2730.

/김미은기자 mekim@/사진=최현배기자 choi@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머그컵'



▲김현욱 작 '수첩'



▲고근호 작 '티셔츠'



▲박선주 작 '가방'



▲'텀블러'



명인 이매방선생과 함께

김·덕·숙의 춤·사·위

16일 광주 문예회관

남도소리 상설무대

한국춤의 명인 우봉 이매방 선생의 춤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무용가 김덕숙씨가 제자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한국춤을 선보인다.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초청된 김덕숙 디딤무용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선다.

김씨는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를 선사하며 이예숙·진금순·이정숙·김영자·이은지·이호준씨 등 단원들은 선비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사풍정감', 섬세한 기예와 날렵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검무' 등을 선보인다. 또 호방한 갈춤과 전통 검무가 어우러진 '장검무' 등 창작춤도 선보이며 피날레 무대는 '대동굿'이 장식한다.

이번 무대가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바로 명인 이매방 선생의 춤사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83세인 이매방 선생은 목포 출신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97호 '살풀이'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명인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허튼춤'을 볼 수 있다.

'승무'와 '살풀이' 이수자인 김덕숙씨는 전주대사습 장원, 장흥가무와 전국대회 대통령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향의 그리움을 풀다

김광옥 한국화전... 15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함평 산내리의 풍경은 아름답고 사랑 사는 이야기는 정겹다.

광주롯데갤러리는 자연과 일상을 정감 어린 시선으로 그려온 한국화가 김광옥(함평 잠월미술관 관장)씨를 초대, '김광옥 한국화전-그리움, 고향길'을 8일~15일까지 연다.

이번 초대전은 2004년 북경 개인전 이후 7년 만에 갖는 작품전으로 잠월미술관이 자리한 산내리의 풍경과 남도의

사계를 담은 '남해 풍경 시리즈' 등 스물 여섯 점의 수묵담채화가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잠월미술관 장으로 일하며 작업한 신작을 대거 출품했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의 소중함, 시골 미술관의 소소한 삶과 감성들이 도드라진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문의 062-221-1808.

이와 함께 잠월미술관에서는 김씨



'산내리에서'

세계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15회의 개인전·초대전을 가졌으며 광주 일곡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문의 061-322-67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얼굴' 작곡가 신귀복 초청 가곡 부르기

11일 호남신대 티 브라운

매달 한차례씩 모여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6월 행사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대학 카페 티 브라운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특히 초대 작곡가가 눈에 띈다. 주최측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곡 '얼굴'의 작곡가 신귀복(한국작곡가

회 회장)씨를 초청, 신씨의 작품을 함께 배우고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회원들은 추어의 노래로 '얼굴'을 함께 부르고 초대 성악가 소프라노 박경숙씨는 신씨의 곡 '당신은'을 선사한다. 또 신씨가 만든 '호수'와 '고향'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김우진씨 등 회원들도 '석양 앞에서', '어머니 사랑' 등 신씨의 곡을 선사한다.



주최측은 또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비목', '불타는 강대나무' 등을 함께 불러

보고 북녘땅을 밟고 싶은 마음을 담아 '그리운 금강산'을 피날레 곡으로 준비했다. 노래 지도는 박호진씨가 맡는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062-575-5999,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a ferry service between Janghung and Jeju. It features a boat named 'ORANGE' and lists three travel packages with prices and details. Package 1: 1 night 2 days Jeju trip for 199,000. Package 2: 2 nights 3 days Jeju trip for 79,000. Package 3: 2 nights 3 days Jeju trip for 99,000.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